

<초국적 서재의 탄생-1950~60년대 한국의 외서 시장과 베스트셀러 문화의 형성>에 관한 토론

이봉범(성균관대)

이용희 선생의 연구(발표)는 1950년대에 본격화된 외서 시장의 형성과 그 현황을 외서의 주종을 이룬 미국도서 및 일본도서의 수입-유통-수용 전반에 걸친 제도적 양상을 재구성한 가운데 1950~60년대 ‘초국적 서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맥락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더욱이 그 맥락을 당대 출판물의 일 주류를 형성했던 번역서(출판) 및 이와 연동된 베스트셀러 문화의 형성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논의함으로써 1950~60년대 새롭게 재편된 한국의 출판독서문화사의 심층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연구의 독창성이 존재한다. 지적했다시피 이 시기 출판독서문화사에 대한 연구가 번역문학사 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출판제도사, 독서문화사, 냉전문화사의 차원에서 다소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서(시장)의 위상과 그 역할에 중점을 둔 접근법은 당대 출판독서문화사 전반을 체계화하는데 나름의 이점이 있다. 외화(外畵)의 수입과 국산영화 제작의 불가분의 관계가 영화사 서술 및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점도 참조할 수 있다.

널리 알려졌다고 1950~60년대 (도서)출판사의 재편과 제도화는 복잡다단하고 역동적이다. 근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문화적 후진성 극복이란 대전제에 대한 암묵적 동의하에) 국가권력, 출판자본, 문화주체, 독서대중 등 다양한 주체의 서로 다른 의도와 욕망이 교차길항하고 있었고 여기에 유네스코, 문화자유회의 등 국제적 문화냉전 기구, 공적(미 국무성, USIS, 유송 등) 및 민간재단(아시아재단, 한미재단, 포드재단 등)의 원조를 매개로 한 미국의 문화냉전의 전략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국가권력은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외국간행물(외서 포함) 수입을 비롯해 출판의 생산-유통-수용 전반을 관리 통제함으로써(검열 및 행정단속) 개방 또는 권장, 금지, 부인(disavowal)의 메커니즘이 혼재-착종하는 질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저작권법, 무역법 등은 외서의 유입을 촉진/제약했다(1950년대 외국 문학작품은 사치품으로 분류돼 공식적인 수입이 불가능했다). 아마도 이 요소들의 물리적/화학적 결합으로 인해 구조된 것이 ‘초국적 서재(초국적 출판독서문화)’였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 그 일련의 전개가 거시적으로 볼 때 식민지시기 및 미군정기의 유산(유제)의 해체이자 동시에 새로운 질서화, 즉 탈식민/냉전이 규정력이 저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어떻게 이를 논리적으로 규명할 것인가? 난제다. 외서 시장의 동태로 돌파해보고자 하는 이 연구의 도전적 시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외서점의 출현과 외서 시장의 형성에 대한 접근 그 자체가 유의미하다. 일단 외서의 법적 규정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외국간행물 이외의 외국간행물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해 ①1950-60년대 외서 수입이 대량 유입되는 제도적 맥락의 복잡성을 좀 더 섬세하게 고찰하는 작업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제2장에 논의한 외서점의 등장, 외서 수입의 규모, 외서의 유통과 밀수, 표절과 해적판의 범람 등이 혼재된 상태로 외서 시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무질서의 기형적 외서 시장이 가능하게 된 배경, 조건과 논리 등을 온전히 천착했을 때 ‘초국적 서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망을 좀 더 정치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초국적 출판독서문화가 탈식민과 냉전문화의 자장 속에서 재구성되었다”는 발표자의 잠정적 가설에 대한 논증을 위해서도). 1950-60년대 외서 수입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장치는 없었다. 1970년대 초에 처음 등장한다(‘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 1973.2.17, 제4조 외서수입업의 등록제, 제5조 납본제도, 제7조 배포 중지 및 내용삭제의 명령). 있다면 1950년대 반공반일주의 검열에 따른 적성도서 및 일본서의 유입 봉쇄와 행정 단속뿐이었다. 그렇다고 외서의 폭증을 이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 특히 일서의 비중이 점증하는 변화(일서 의존도 심화)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을 조금 더 집요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외서의 수요/공급의 관계로 이 부분을 상세화 한 점은 돋보이나 현상(황) 너머의 본질적 맥락에까지 논의가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②외서의 수입과 유통의 일 거점이 된 외서점(법문사, 범한서적 등)의 존재와 그 역할을 더 알고 싶다. 이 외에 더 있는가? 일반출판사의 외서 번역출판과 구별되는 외서점의 전문성과 규모가 그렇게 컸는가 궁금하다(영화에서 외화수입업자와 영화제작자가 동일했다는 것과 비교해서 볼 때). 그리고 외서 수입업자-외서 전문서점-외서 시장 형성의 관계는? ③아울러 당시 수입(유통)되었던 외서의 내역이 궁금하다. 양서 및 일서가 주종을 이루었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까지 확인한 출판연감이나 외국도서 종합목록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실체적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라.

2)1950-60년대를 묶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다소는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외서 시장의 형성이란 주 논점을 강화하기 위한 서술 전략의 결과로 보이는데, 그 연속성 이상으로 전환과 또 다른 재편의 맥락 또한 중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외서의 수입-유통-수용 뿐 아니라 법적 정비를 비롯해 출판독서문화사의 주요 지점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 고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용하지 않을까? 4.19

혁명 및 5.16쿠데타와 출판독서문화사의 관계 나아가 미국 및 일본 출판(시장)과 국내 출판의 접촉과 영향 관계 등의 새로운 국면 등.

3)외서(시장)/번역/베스트셀러의 관계망에 대한 논의가 이 연구의 또 다른 요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상호)관계 설정이 밀도 있게 서술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외서 시장이 한국어번역물의 저본을 공급했고 베스트셀러 문화 형성이 번역 붐을 매개·촉진시켰다는 논의 구조를 통해 이들의 관계망을 재설정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외서 수입과 번역의 관계가 단선적이다. 양자가 선후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외국정기간행물(잡지류)과 외서의 유통과 수용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 ②이와 관련해서 베스트셀러 문화(제도)와 대중독자층의 확대 및 분화(재구조화)의 관계를 논구한 것은 의미가 크다. 1950년대 출판시장의 성장, 특히 신흥출판사들이 공통적으로 구사한 잡지연쇄전략으로 다양한 목표독자층을 창출하고 세대, 계층, 젠더, 지역 등을 포괄한 총량적인 독자층 확대가 미국 및 일본의 출판시장의 동향과 연계된 베스트셀러 제도의 정착과 결부되어 독자층의 분화가 촉진되었다는 논의는 당대 독서문화사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또 이 분화의 과정에서 지식인, 청년 학생 중심의 외서 독자층이 대중독자층으로 확대되면서 초국적 서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맥락을 추적한 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만 그것이 외서 시장의 형성과 그 성장의 몫으로만 간주할 수 있는가. 여성독자(여대생)의 설문조사의 결과가 1950년대의 일반적으로 현상으로 간주하기엔 다소의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③초국적 서재의 전형적인 면모는 (외서전문)노점상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질적이고도 국제적인 문화의 진열장이 과연 지식인층을 넘어 대중독자층에도 확산되었을까 이 부분을 전적으로 수궁하기가 아직까지는 힘들다. ④이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외서 시장의 형성에서 비롯된 1960년대 초국적 서재는 대단히 불구적이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외의 베스트셀러 문화로 촉진·구축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베스트셀러의 다른 한편에는 금서(또는 수입-유통-수용되지 못한 외서 및 번역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대 대중독자들이 초국적 서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읽었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욕망했는가가 더 궁금해진다.